

경제전망보고서

2021. 11

여 백

차 례

< 요약 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대내외 여건 점검 | 1 |
| 1. 세계경제 | 1 |
| 2. 국내경제 | 11 |
| <주요 전망 전제치> | 14 |
| II. 거시경제 전망 | 15 |
| 1. 경제성장 | 15 |
| 2. 고용 | 28 |
| 3. 물가 | 31 |
| 4. 경상수지 | 35 |
| III. 주요 현안점검 | 36 |
| 품목별 수출 물량의 추세 및 단기 여건 점검 | 36 |

요 약

①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,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4.0%, 3.0% 수준을 나타낼 전망

○ 국내 경기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견실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

- 민간소비는 백신접종 확대 및 방역정책 전환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
-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회복, 신성장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
-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투자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목건설 투자도 늘어나면서 점차 회복될 전망
-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, 견조한 IT 수요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

② 취업자수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35만명, 25만명 증가할 전망

○ 경기회복, 방역정책 전환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

③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2.3%, 2.0%를 나타낼 전망

- 국제유가가 큰 폭 상승한 가운데 경기회복으로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

④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920억달러, 81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

-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 5%대 초반에서 내년 4%대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

경제 전망

| | 2020 | 2021 | | | 2022 ^{e)} | | | 2023 ^{e)}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▪ GDP ¹⁾ | -0.9 | 4.0 | 4.0 | 4.0 | 3.0 | 3.1 | 3.0 | 2.5 |
| 민간소비 | -5.0 | 2.4 | 4.7 | 3.5 | 4.1 | 3.2 | 3.6 | 2.5 |
| 설비투자 | 7.1 | 12.6 | 3.9 | 8.2 | -0.5 | 5.5 | 2.4 | 1.5 |
| 지식재산생산물투자 | 4.0 | 4.0 | 4.1 | 4.1 | 4.1 | 3.7 | 3.9 | 3.8 |
| 건설투자 | -0.4 | -1.5 | 0.1 | -0.7 | 2.1 | 3.1 | 2.6 | 2.1 |
| 상품수출 | -0.5 | 14.4 | 3.5 | 8.5 | 1.9 | 3.3 | 2.6 | 2.5 |
| 상품수입 | -0.1 | 12.5 | 7.8 | 10.1 | 2.4 | 3.7 | 3.1 | 2.6 |
| ▪ 취업자수 증감(만명) ¹⁾ | -22 | 12 | 57 | 35 | 28 | 22 | 25 | 20 |
| ▪ 실업률 | 4.0 | 4.5 | 2.9 | 3.7 | 3.8 | 3.3 | 3.6 | 3.7 |
| ▪ 고용률 | 60.1 | 59.8 | 61.1 | 60.4 | 60.0 | 61.1 | 60.6 | 60.7 |
| ▪ 소비자물가 ¹⁾ | 0.5 | 1.8 | 2.8 | 2.3 | 2.3 | 1.8 | 2.0 | 1.7 |
| 식료품·에너지 제외 | 0.4 | 0.8 | 1.6 | 1.2 | 2.0 | 1.7 | 1.8 | 1.6 |
| 농산물·석유류 제외 | 0.7 | 1.2 | 2.1 | 1.6 | 2.3 | 1.9 | 2.1 | 1.7 |
| ▪ 경상수지(억달러) | 753 | 443 | 476 | 920 | 360 | 450 | 810 | 750 |

주: 1) 전년동기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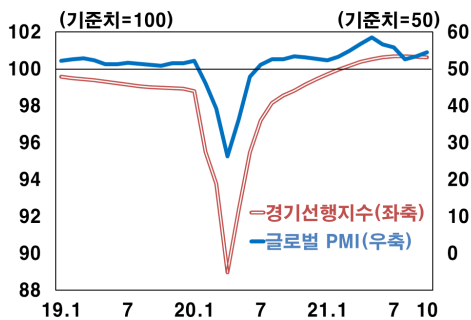
I. 대내외 여건 점검

1. 세계경제

□ 세계경제는 회복흐름을 이어갈 전망

-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3/4분기중 회복흐름이 다소 주춤하였으나, 4/4분기 들어 글로벌 공급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성장세를 지속
- 향후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백신접종 확대에 힘입어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될 전망
 - 코로나19 재확산, 글로벌 공급차질, 중국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
경기선행지수 및 글로벌PMI



자료: OECD, JP Morgan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

| | | (%)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전망시점 | 2020 | 2021 ^{e)} | 2022 ^{e)} |
| IMF | 21.10월 | -3.1 | 5.9 | 4.9 |
| (선진국) | | -4.5 | 5.2 | 4.5 |
| (신흥국) | | -2.1 | 6.4 | 5.1 |
| OECD | 21.9월 | -3.4 | 5.7 | 4.5 |
| Global Insight | 21.10월 | -3.4 | 5.5 | 4.3 |
| 6개 IB 평균 | 21.10월 | -3.3 | 6.0 | 4.5 |

자료: 각 기관

□ 세계교역은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

- 상품교역은 글로벌 물류지연*, 기저효과 축소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**

* 세계 선박 물류 평균 지연일수(일):

19.12월 4.3 → 20.12월 5.8 → 21.4월 5.8 → 8월 7.7 → 9월 7.3

** 세계상품교역량(CPB 수입량, 전년동월대비, %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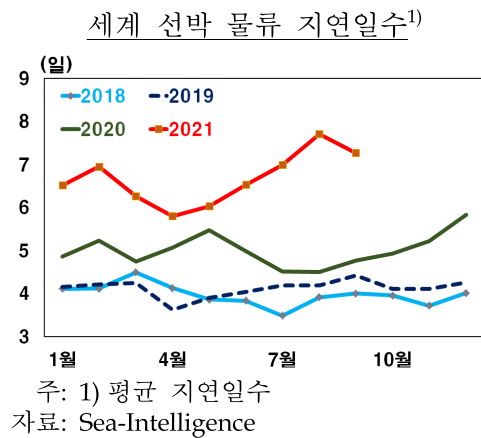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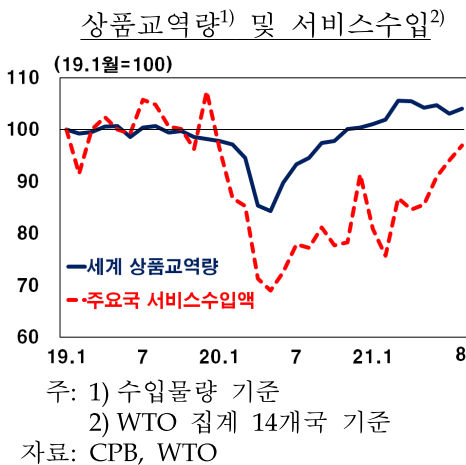
20.3/4분기 -5.1 → 4/4분기 0.6 → 21.1/4분기 6.6 → 2/4분기 21.2 → 8월 10.0

- 서비스교역은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*

* 주요 14개국 서비스수입액(WTO 집계, 전년동월대비, %):

20.3/4분기 -24.1 → 4/4분기 -18.6 → 21.1/4분기 -9.4 → 2/4분기 22.7 → 8월 25.5

- 향후 상품교역은 물류지연과 생산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겠으며, 서비스교역도 입국제한 완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



(미 국)

□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

- 글로벌 공급차질,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3/4분기중 회복세가 주춤*하였으나, 4/4분기 들어 고용 및 소비 개선세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재개되는 모습

* GDP성장률(전기대비, %): 21.1/4분기 1.5 → 2/4분기 1.6 → 3/4분기 0.5

- 10월중 여가·호텔·식당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*되고, 소매판매는 4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

* 취업자수 증감(비농업, 만명): 21.8월 48.3 → 9월 31.2 → 10월 53.1

- 산업생산(10월)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

- 향후 양호한 고용회복세, 생산차질 및 물류지연 완화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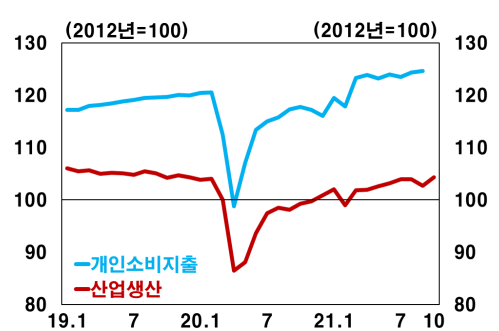
| ▶ 미국 성장률 전망(%) | 2020 | 2021 ^{e)} | 2022 ^{e)}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· IMF(21.10월) | | 6.0 | 5.2 |
| · OECD(21.9월) | -3.4 | 6.0 | 3.9 |

미국 주요 경제지표

| | (전월대비, %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21.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 산업생산 | 0.8 | 0.0 | -1.3 | 1.6 |
| 서비스소비 | 0.8 | 0.4 | 0.4 | .. |
| 소매 판매 | -1.6 | 1.2 | 0.8 | 1.7 |
| 실업률 | 5.4 | 5.2 | 4.8 | 4.6 |
| ISM제조업지수 ¹⁾ | 59.5 | 59.9 | 61.1 | 60.8 |
| ISM서비스업지수 ¹⁾ | 64.1 | 61.7 | 61.9 | 66.7 |

주: 1) 기준치=50
 자료: 미 연준, 경제분석국, 인구통계국, 노동통계국, ISM

미국 개인소비지출 및 산업생산



자료: 경제분석국, 미 연준

(유로지역)

□ 양호한 회복흐름을 지속할 전망

-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3/4분기중 빠른 회복흐름*이 이어졌으나 4/4분기 들어 일부 국가에서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회복속도가 다소 둔화

* GDP성장률(전기대비, %): 21.1/4분기 -0.3 → 2/4분기 2.1 → 3/4분기 2.2

- 10월 서비스업PMI가 기준치(50)를 상회한 가운데 프랑스, 스페인 등은 개선세를 지속한 반면, 독일은 회복세가 둔화

- 향후 경제활동 재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회복기금 집행* 등이 양호한 회복흐름을 뒷받침할 전망

* 주요 4개국 집행액(억유로): 2021년 490 → 2022년 890(Barclays 추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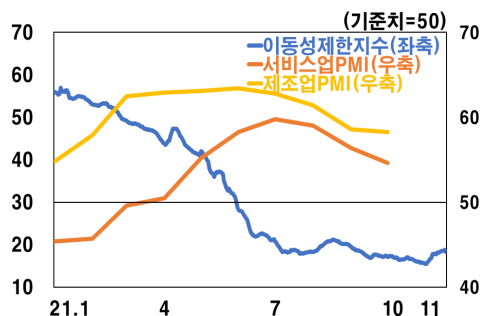
| ▶ 유로지역 성장률 전망(%) | 2020 | 2021 ^{e)} | 2022 ^{e)}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· IMF(21.10월) | | 5.0 | 4.3 |
| · OECD(21.9월) | -6.4 | 5.3 | 4.6 |

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

| | (전월대비, %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21.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 산업생산 | 1.3 | -1.7 | -0.2 | .. |
| 소매판매 | -2.2 | 1.0 | -0.3 | .. |
| 실업률 | 7.6 | 7.5 | 7.4 | .. |
| 제조업PMI ¹⁾ | 62.8 | 61.4 | 58.6 | 58.3 |
| 서비스PMI ¹⁾ | 59.8 | 59.0 | 56.4 | 54.6 |

주: 1) 기준치=50
자료: EU통계청, IHS Markit

유로지역 이동제한지수 및 PMI



자료: Goldman Sachs, IHS Markit

(일 본)

□ 완만한 회복흐름을 나타낼 전망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과 자동차 생산차질의 영향으로 3/4분기중 크게 부진*하였다가 4/4분기 들어 개선되는 조짐

* GDP성장률(전기대비, %): 21.1/4분기 -1.1 → 2/4분기 0.4 → 3/4분기 -0.8

- 최근 들어 자동차 생산차질이 완화*되고 10월 수출도 증가로 전환

* 자동차 생산차질 대수(IHS Markit, 21.11월):

21.3/4분기 56.6만대 → 4/4분기^{e)} 37.4만대

- 앞으로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는 가운데 신정부의 재정지원책*이 소비회복을 뒷받침할 전망

* 가계현금지급, 중기지원 등을 위한 55.7조엔 규모의 대책을 발표(11.19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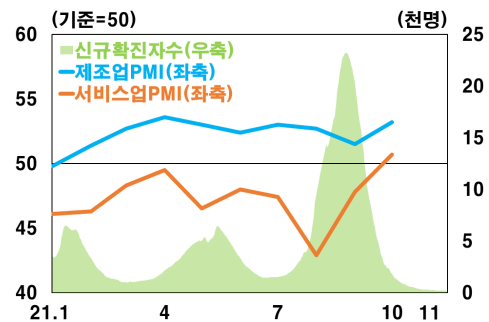
| ▶ 일본 성장률 전망(%) | 2020 | 2021 ^{e)} | 2022 ^{e)}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· IMF(21.10월) | | 2.4 | 3.2 |
| · OECD(21.9월) | -4.6 | 2.5 | 2.1 |

일본 주요 경제지표

| | (전월대비, %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21.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 산업생산 | -1.5 | -3.6 | -5.4 | .. |
| 소매판매 | 1.0 | -4.0 | 2.8 | .. |
| 수출(통관) | 0.1 | 0.3 | -3.9 | 2.7 |
| 민간기계주주액 ¹⁾ | 0.9 | -2.4 | 0.0 | .. |
| 제조업PMI ²⁾ | 53.0 | 52.7 | 51.5 | 53.2 |
| 서비스업PMI ²⁾ | 47.4 | 42.9 | 47.8 | 50.7 |

주: 1) 선박, 전력 제외 2) 기준치=50
 자료: 경제산업성, 재무성, 내각부,
 IHS Markit

일본 신규확진자수¹⁾ 및 PMI



주: 1) 7일 이동평균
 자료: Bloomberg, Our World in Data

(중 국)

□ 성장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

- 최근 헝다사태, 전력난, 고강도 방역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*

* GDP성장률(전년동기대비, %): 21.1/4분기 18.3 → 2/4분기 7.9 → 3/4분기 4.9

-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, 산업생산, 소매판매 등 여타 실물지표는 부진
- 향후 부동산 디레버리징 기조 지속, 공동부유 정책에 따른 기업규제 강화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- 이 경우에도 양호한 정책여력, 대외여건 등을 바탕으로 잠재수준*의 성장세는 이어갈 전망

* 인민은행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5.0~5.7% 수준으로 추정(21.3월)

| ▶ 중국 성장률 전망(%) | 2020 | 2021 ^{e)} | 2022 ^{e)}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· IMF(21.10월) | | 8.0 | 5.6 |
| · OECD(21.9월) | 2.3 | 8.5 | 5.8 |

중국 주요 경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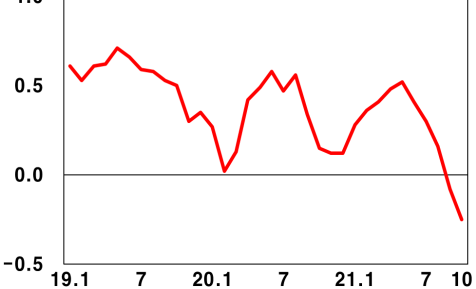
(전년동월대비,%)

| | 21.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산업생산 | 6.4 | 5.3 | 3.1 | 3.5 |
| 소매판매 | 8.5 | 2.5 | 4.4 | 4.9 |
| 고정투자 ¹⁾ | 10.3 | 8.9 | 7.3 | 6.1 |
| 수출 | 19.3 | 25.6 | 28.2 | 27.1 |
| 제조업PMI ²⁾ | 50.4 | 50.1 | 49.6 | 49.2 |
| 비제조업PMI ²⁾ | 53.3 | 47.5 | 53.2 | 52.4 |

주: 1) 누계 기준 2) 기준치=50
자료: 국가통계국, 해관총서

중국 신규주택 분양가격

(전월대비, %)



자료: 국가통계국

(신흥국)

□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회복흐름이 재개될 전망

- 아세안5국은 감염병 확산세 둔화에 따른 생산차질 완화, 외국인 관광객 유입 재개* 등으로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

*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태국, 말레이시아 등은 11월부터 유명 관광지에 대한 무격리 입국을 시행

- 10월 제조업PMI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등 경기가 개선되는 조짐

- 인도는 백신접종률 상승, 인프라투자 확대*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

* 국가 소유의 인프라 자산을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(NMP)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신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

- 산업생산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10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PMI도 기준치를 크게 상회

| | 아세안5 ¹⁾ 주요 경제지표 | | | | 인도 주요 경제지표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(전년동월대비, %) | | | | (전년동월대비, %) | | | | |
| | 21.7월 | 8월 | 9월 | 10월 | 21.7월 | 8월 | 9월 | 10월 | |
| 산업생산 ²⁾ | 0.9 | -4.3 | -1.3 | .. | 산업생산 | 11.5 | 12.0 | 3.1 | .. |
| 소매판매 | -6.7 | -8.8 | .. | .. | 자동차판매 | 4.0 | -11.4 | -19.8 | -24.7 |
| 수출 | 17.0 | 16.7 | 17.4 | .. | 수출 | 49.9 | 45.8 | 22.6 | 43.1 |
| (대중수출) | 21.6 | 30.9 | 22.8 | .. | 제조업PMI ¹⁾ | 55.3 | 52.3 | 53.7 | 55.9 |
| 제조업PMI ³⁾ | 44.9 | 44.4 | 48.1 | 52.7 | 서비스업PMI ¹⁾ | 45.4 | 56.7 | 55.2 | 58.4 |

주: 1) 인도네시아, 태국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베트남

2)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제외

3) 기준치=50

자료: 각국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주: 1) 기준치=50

자료: 인도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○ 브라질은 가뭄과 물류지연으로 인한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

- 재정적자 우려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*과 연료·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**이 소비를 제약

* 헤알/달러: 21.8월말 5.15 → 9월말 5.44 → 10월말 5.64

**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대비, %): 21.8월 9.7 → 9월 10.3

○ 러시아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 호조*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 흐름을 지속할 전망

* 원유수출(전년동월대비, %): 21.6월 116.9 → 7월 89.2 → 8월 110.5

- 10월 제조업PMI가 지난 5월(51.9)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상회

| |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| | | | |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(전년동월대비, %) | | | | | (전년동월대비, %) | | | |
| | 21.7월 | 8월 | 9월 | 10월 | | 21.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 산업생산 | 1.3 | -0.7 | -3.9 | .. | 산업생산 | 7.2 | 4.6 | 6.8 | .. |
| 소매판매 | 5.8 | -4.1 | -5.4 | .. | 소매판매 | 5.1 | 5.3 | 5.6 | .. |
| 수출 | 31.7 | 56.8 | 33.9 | 27.6 | 수출 | 85.2 | 85.3 | 47.0 | .. |
| 제조업PMI ¹⁾ | 56.7 | 53.6 | 54.4 | 51.7 | 제조업PMI ¹⁾ | 47.5 | 46.5 | 49.8 | 51.6 |
| 서비스업PMI ¹⁾ | 54.4 | 55.1 | 54.6 | 54.9 | 전산업PMI ¹⁾ | 53.5 | 49.3 | 50.5 | 48.8 |

주: 1) 기준치=50
 자료: 브라질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 자료: 러시아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(국제유가)

□ 국제유가(두바이유 기준)는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으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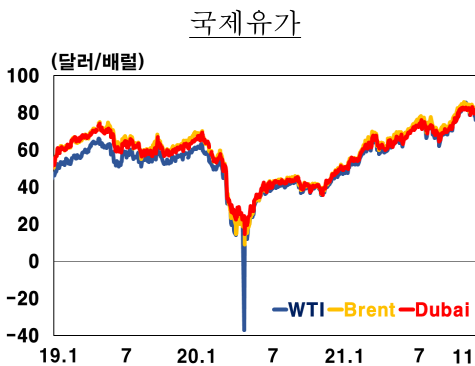
○ 이는 경기회복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대된 반면 미국, OPEC+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데 주로 기인

□ 주요 기관은 국제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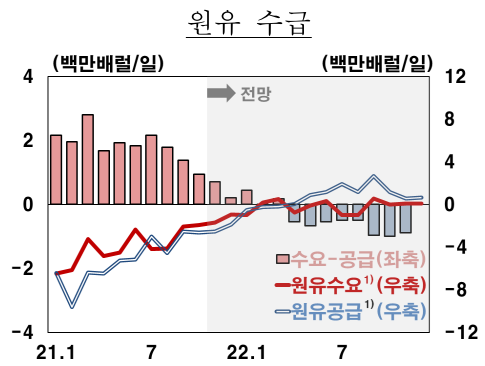
○ 내년 이후에는 주요 산유국의 생산 확대에 힘입어 수급불균형은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(EIA 등)

▪ 일각에서는 겨울철 이상기후 발생*으로 계절적 수요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

* 美 국립해양대기청(NOAA)은 3개월내 라니냐(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.5도 이상 낮은 현상)가 발생할 확률을 87%로 발표(21.11월)



자료: Bloomberg, Reuters



주: 1) 19년 동월대비 증감

자료: EIA

(기타원자재가격)

□ 천연가스, 석탄, 여타 원자재 가격은 10월 이후 대체로 안정된 모습

○ 이는 주요 원자재 생산국가의 증산 등에 힘입어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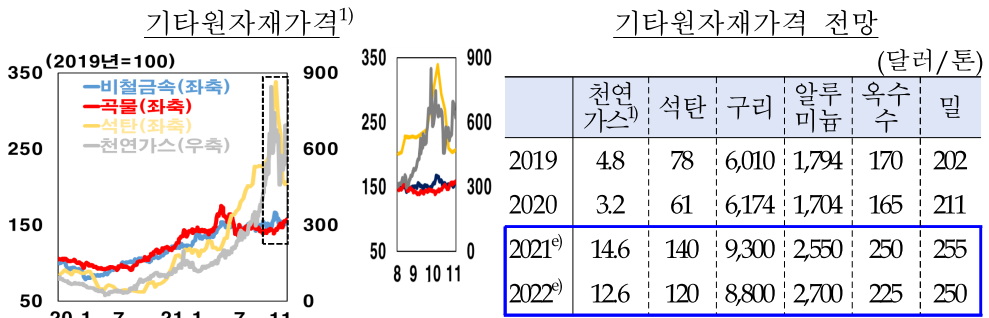
▪ (천연가스·석탄)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공급 확대, 중국의 석탄 증산 허용* 등으로 가격이 반락

* 중국 정부는 전력난 심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그간 실시해 온 석탄 생산 제한을 완화(10.8일)하고 투기거래 단속 계획을 발표(10.21일)

▪ (비철금속) 최근 급등했던 알루미늄 가격은 중국 전력난 완화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나타냄

▪ (곡물) 요소비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옥수수를 중심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

□ 주요 기관은 내년중 수급여건 개선으로 기타원자재 가격이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(World Bank)



주: 1) 석탄은 호주 뉴캐슬항 현물, 천연 가스 TTF 거래소 현물 기준

주: 1) 단위: 달러/MMBtu
자료: World Bank(21.10월)

자료: Bloomberg

2. 국내경제

(재정지출)

- 금년중 재정지출은 11.9% 늘어나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 - 이는 코로나 피해부문 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(49.8조원)한 데 주로 기인
 - 2022년 재정지출은 금년 추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.4% 증가하고, 2023년에는 3.2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재정지출 전망¹⁾

| | 2020 | | 2021 | | 2022 ^{e)} | | 2023 ^{e)}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연간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· 통합재정지출 (증감률 ²⁾) | 517.8 (13.6) | 329.0 (9.4) | 250.3 (15.3) | 579.3 (11.9) | 341.4 (3.8) | 246.2 (-1.6) | 587.6 (1.4) | 606.6 (3.2) |
| - 경상지출 | 455.1 | 284.5 | 226.8 | 511.3 | 302.8 | 218.4 | 521.2 | 535.5 |
| - 자본지출 | 34.9 | 24.2 | 12.9 | 37.1 | 23.4 | 16.9 | 40.3 | 40.4 |
| - 순 용 자 | 27.8 | 20.3 | 10.6 | 30.9 | 15.2 | 11.0 | 26.1 | 30.6 |

주: 1) 통합재정 기준 2) 전년동기대비 기준

자료: 기획재정부, 자체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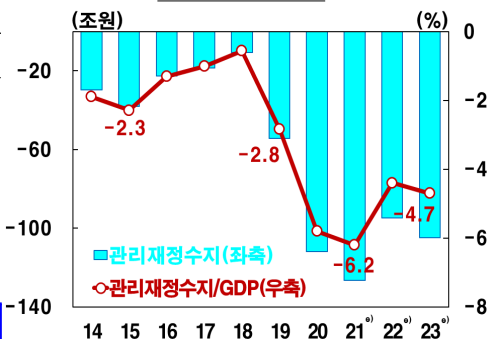
- 금년중 관리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규모가 이어질 전망

- 2022~2023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

주요 분야별 재정지출(총지출)

| 구 분 | 2021 ¹⁾ | 2022 ²⁾ | 증감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· 보건복지고용 | 212.1 | 216.7 | 4.6 |
| · 일반지방행정 | 99.7 | 96.8 | -2.9 |
| ·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| 40.1 | 30.4 | -9.7 |
| · R&D | 27.5 | 29.8 | 2.3 |
| · SOC | 26.6 | 27.5 | 0.9 |
| 총지출 | 604.9 | 604.4 | -0.5 |

관리재정수지³⁾



주: 1) 2차 추경예산 기준 2)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

3) 2021년은 2차 추경예산, 2022년은 정부예산안, 2023년은 2021~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

자료: 기획재정부

(부동산시장)

□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9월 이후 상승폭이 다소 축소

| (전월대비, %) | 21.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▶ 전국 | 0.7 | 0.8 | 0.9 | 1.0 | 0.9 | 0.9 |
| - 수도권 | 0.9 | 1.0 | 1.2 | 1.3 | 1.2 | 1.1 |
| - 비수도권 | 0.6 | 0.6 | 0.6 | 0.7 | 0.6 | 0.7 |

자료: 한국부동산원

○ 금년 들어 개발 기대감 등으로 높아졌던 가격상승 기대*가 최근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약화

| * (100초과시 상승전망 우세) | 21.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▶ 주택가격전망CSI | 124 | 127 | 129 | 129 | 128 | 125 |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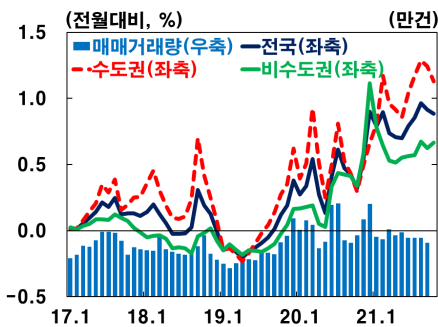
□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세신고제 시행, 보유세 부담 등에 따른 매물 부족과 재건축 이주, 청약 대기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*

* 10월 이후 주간 오름세는 둔화(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: 10월2주 0.19% → 4주 0.18% → 11월1주 0.17% → 2주 0.16%)

| (전월대비, %) | 21.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▶ 전국 | 0.4 | 0.5 | 0.6 | 0.6 | 0.6 | 0.6 |
| - 수도권 | 0.4 | 0.5 | 0.8 | 0.8 | 0.8 | 0.7 |
| - 비수도권 | 0.4 | 0.4 | 0.4 | 0.4 | 0.4 | 0.5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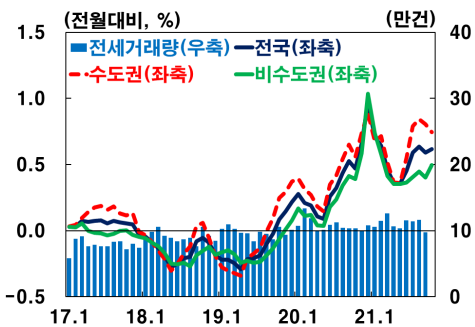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부동산원

주택매매가격 및 거래량



자료: 국토교통부, 한국부동산원

주택전세가격 및 거래량



자료: 국토교통부, 한국부동산원

□ 내년중 주택매매가격은 차입여건 악화, 공급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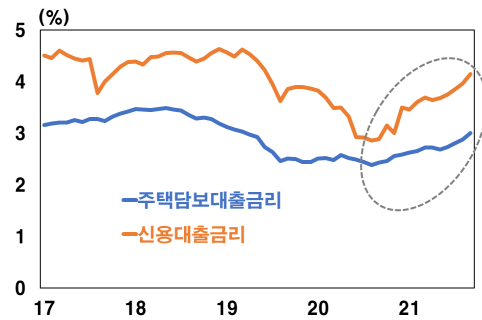
○ 대출규제 강화, 가계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수요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

○ 내년 입주물량은 금년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

□ 내년중 주택전세가격도 오름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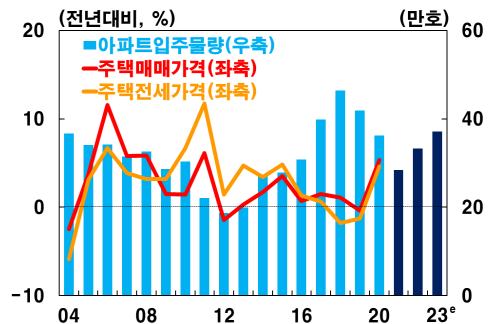
* 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2년이 도래하는 22.8월부터 갱신계약(2+2년)이 만료되고 신규계약이 체결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

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¹⁾



주: 1)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
자료: 한국은행

주택가격 및 입주물량



자료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114, 조사국 추정

<주요 전망 전제치>

(코로나19 전개양상 시나리오)

- (세계) 전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경제활동 제한이 점차 완화되겠으며, 그 속도는 국가별로 상이
 - 선진국은 금년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활동 제한의 완화 기조가 지속
 - 신흥국은 내년 이후 광범위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경제활동 제한이 점차 완화
- (국내) 금년말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활동 제한의 완화 기조가 지속

- 금년 및 내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전개양상과 주요국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5.5%, 4.3%로 전제
 - 2023년은 3.4% 성장
- 세계교역 신장률은 각각 8.1%, 5.5%로 전제
 - 2023년은 4.2% 증가
- 원유도입단가(기간 평균)는 각각 배럴당 71달러, 76달러로 전제
 - 2023년은 71달러 수준

전망 전제치

| | 2020 | 2021 ^{e)} | 2022 ^{e)} | | | 2023 ^{e)}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|
| ▪ 세계경제 성장률(%) ¹⁾ | -3.2 | 5.5 | 4.2 | 4.4 | 4.3 | 3.4 |
| 미 국 | -3.4 | 5.6 | 4.3 | 3.7 | 4.0 | 2.4 |
| 유 로 | -6.4 | 5.0 | 5.0 | 3.6 | 4.3 | 2.3 |
| 일 본 | -4.6 | 2.0 | 2.3 | 2.5 | 2.4 | 1.0 |
| 중 국 | 2.3 | 8.0 | 4.6 | 5.7 | 5.2 | 5.3 |
| ▪ 세계교역 신장률(%) ¹⁾ | -8.3 | 8.1 | 5.2 | 5.8 | 5.5 | 4.2 |
| ▪ 원유도입단가(달러/배럴) ²⁾ | 45 | 71 | 78 | 74 | 76 | 71 |

주: 1) 전년동기대비 기준

2) 기간 평균, CIF 기준, 원유도입비중(2020년 기준): 중동산 69%, 여타 31%

Ⅱ. 거시경제 전망

1. 경제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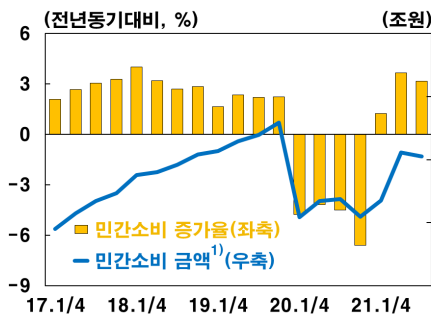
(1) 민간소비

- 민간소비는 금년 3/4분기중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개선세가 주춤하였으나 최근 들어 회복흐름을 되찾는 모습
- 향후 민간소비는 백신접종 확대 및 방역정책 전환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
- 가계소득은 자영업 업황이 개선되고 고용도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

| | 21.1/4 | 2/4 | 3/4 | 10월 | 11월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▶ 소상공인 경기전망 BSI | 75.9 | 73.5 | 60.8 | 78.1 | 87.6 |
| - (음식점업) | 74.0 | 73.4 | 57.5 | 75.8 | 93.1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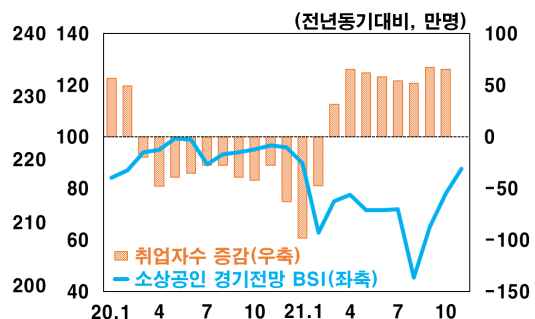
자료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GDP 민간소비



주: 1) GDP 실질금액(계절조정)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취업자수 및 소상공인 경기전망



자료: 통계청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○ 소비심리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

- 소비자심리지수가 9월 이후 상승 전환한 가운데, 그간 회복이 더뎠던 40세 미만 연령층의 소비심리도 19년말 수준을 회복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(19.12월=101.3) | <u>21.6월</u> | <u>7월</u> | <u>8월</u> | <u>9월</u> | <u>10월</u> | <u>11월</u> |
| ▶ 소비자심리지수 | 110.3 | 103.2 | 102.5 | 103.8 | 106.8 | 107.6 |

자료: 한국은행

□ 부문별로는 대면서비스 소비가 민간소비의 회복을 주도하겠으며, 국외소비도 점차 개선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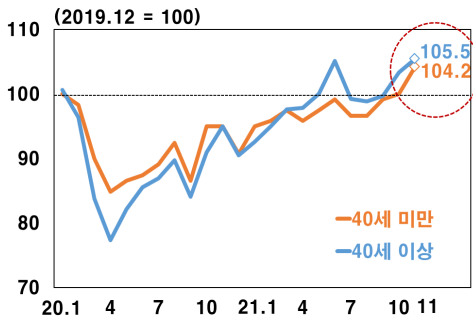
○ 대면서비스 소비는 영업제한 완화, 재택근무 감소 등에 따라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

○ 재화소비는 의복 등 외부활동 관련 품목의 지출이 늘어나고 부진했던 승용차 판매도 점차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
○ 국외소비는 국내외 방역조치 완화*로 해외여행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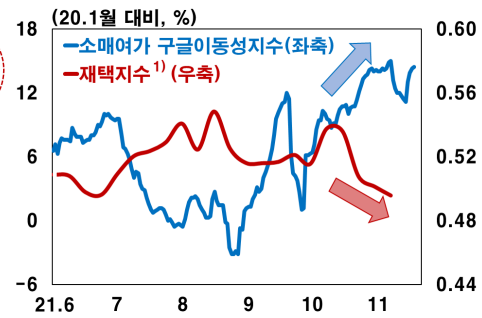
* 국내에서는 백신 접종완료자 귀국시 자가격리가 면제(21.5월)되었으며, 해외에서도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가 점차 증가(팜, 태국 등)

소비지출전망 CSI



자료: 한국은행

이동성 및 재택근무



주: 1) 평일 일과시간대 거주지에 체류한 시간 비중(0~1)

자료: Google, 국내 이동통신사

□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향후 민간소비의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

○ 4/4분기에는 추경 집행* 등이 소비 반등에 기여

* 소상공인 손실보상(2.4조원)[#], 상생소비지원금(0.7조원), 소비쿠폰(0.2조원) 등 예산도 집행중

기존예산 1.0조원 + 초과세수 활용 추가확보 1.4조원

○ 내년에도 소상공인,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정책지원*이 계속되면서 가계 구매력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* 소상공인 손실보상: <21년> 1.0조원 → <22년> 1.8조원
 저소득·취약계층 지원: 75.1조원 → 83.3조원
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: 20.1조원 → 23.5조원

⇒ 민간소비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3.5%, 3.6% 증가할 전망

○ 2023년에는 2.5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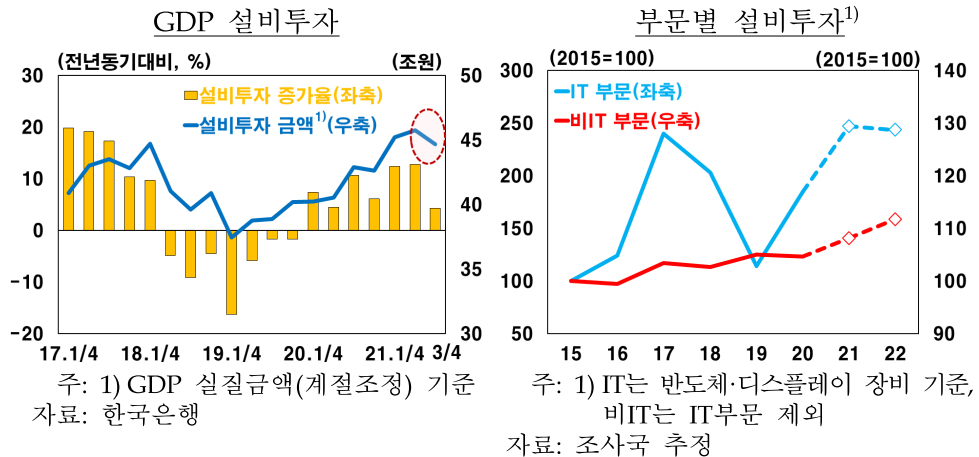
민간소비 전망

(전년동기대비, %)

| 2020 | 2021 | | 2022 ^{e)} | 2023 ^{e)} | | |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| 상반 | 하반 ^{e)} | | 상반 | 하반 | | |
| 연간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-5.0 | 2.4 | 4.7 | 3.5 | 4.1 | 3.2 | 3.6 | 2.5 |

(2) 설비투자

- 금년 3/4분기중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나, 자동차 생산차질 등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조정받는 모습
- 향후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회복, 신성장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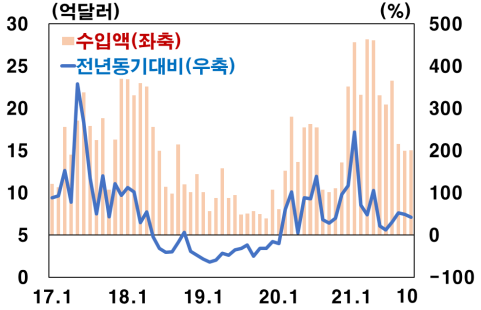
- 제조업은 대규모 IT부문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, 비IT부문 설비투자도 개선되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IT부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가 지속
 - 반도체는 메모리 공정 전환,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
 - 디스플레이는 고부가가치인 OLED 부문 증설이 예정

IT부문 기업 투자 계획

| | 2021년 | 2022년 | (조원) 내용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삼성 (반도체) | 38 | 34~38 | 경쟁력 제고 |
| SK 하이닉스 | 13 | 13~17 | 내드 증설 |
| 삼성 (디스플레이) | 4 | 4~6 | 중소형 OLED |
| LG 디스플레이 | 3 | 4 | 중소형 OLED |
| 합계 | 58 | 55~65 | |

자료: 각사 모니터링, IB 및 증권사 전망

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



자료: 관세청

○ 비IT부문은 글로벌 경기회복, 신성장산업 확대 등으로 투자가 증가할 전망

-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계, 철강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업 투자 유인이 증대*

*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설비투자 조정압력(제조업 생산 증가율 - 생산능력 증가율)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확대#

설비투자 조정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시차를 두고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경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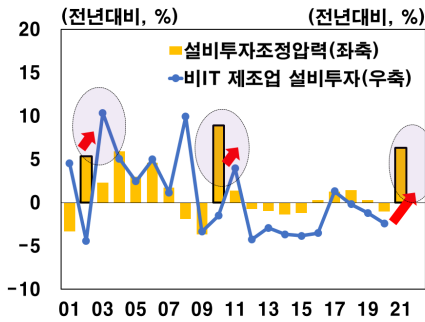
- 배터리, 바이오, 전기차 등 신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□ 서비스업*은 방역정책 전환 등으로 업황이 회복되면서 설비투자가 증가할 전망

* 산업별 설비투자(연간GDP) 내의 서비스업 비중(20년)은 40.1%로 운수업(9.9%), 정보통신업(6.2%),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3.4%), 보건복지업(3.1%)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

○ 방역정책 전환에 힘입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면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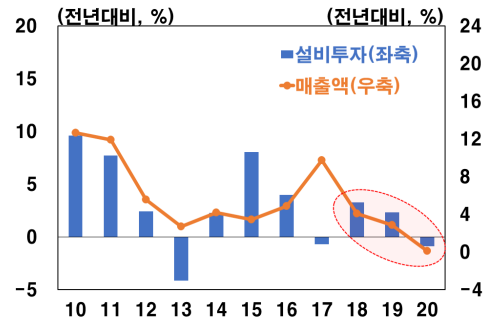
비IT제조업투자와 설비조정압력¹⁾²⁾



주: 1) 제조업생산 증가율- 생산능력증가율
2) 21년은 1/4~3/4분기중

자료: Kis-value, 통계청

서비스업 매출과 설비투자



자료: 한국은행

⇒ 설비투자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8.2%, 2.4% 증가할 전망

○ 2023년에는 1.5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설비투자 전망

| | | (전년동기대비, %) | | | | |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2020 | | 2021 | | 2022 ^{e)} | | 2023 ^{e)} | |
| 연간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7.1 | 12.6 | 3.9 | 8.2 | -0.5 | 5.5 | 2.4 | 1.5 |

(3) 지식재산생산물투자

□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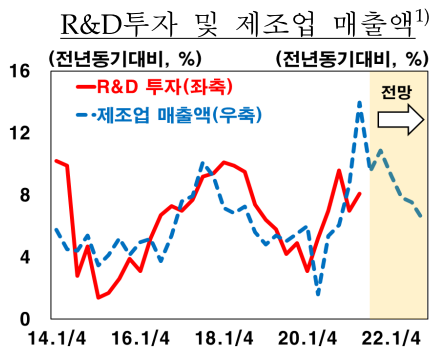
○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R&D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

- 정부는 내년도 신성장산업 분야 예산을 금년 대비 상당폭 확대 (29.8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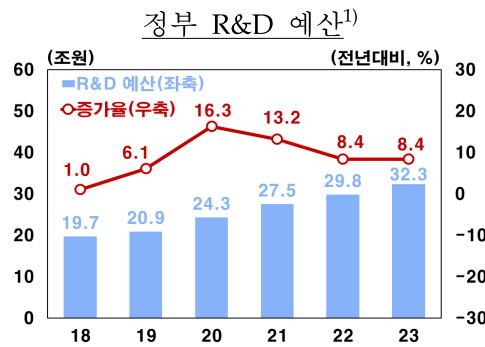
○ 기타지식생산물투자는 IT서비스 수요 확대,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

- 5G 특화망* 신속 구축을 위한 정부의 심사절차 통합 및 간소화 등 규제개선도 투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

* 전국범위 이동통신과 달리 특정지역(건물, 공장 등)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네트워크



주: 1) 21.3/4분기 이후는 컨센서스 수치
자료: 한국은행, FnGuide



주: 1) 21년까지는 추정, 22년은 정부예산안, 23년은 21~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
자료: 기획재정부

⇒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4.1%, 3.9% 증가할 전망

○ 2023년에는 3.8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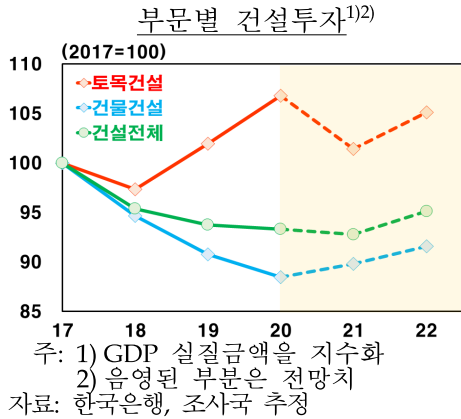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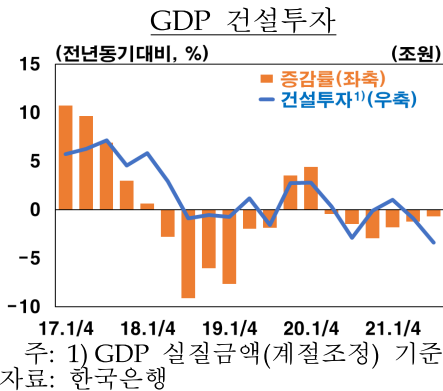
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

| 2020 | | 2021 | | 2022 ^{e)} | | 2023 ^{e)} | |
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연간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4.0 | 4.0 | 4.1 | 4.1 | 4.1 | 3.7 | 3.9 | 3.8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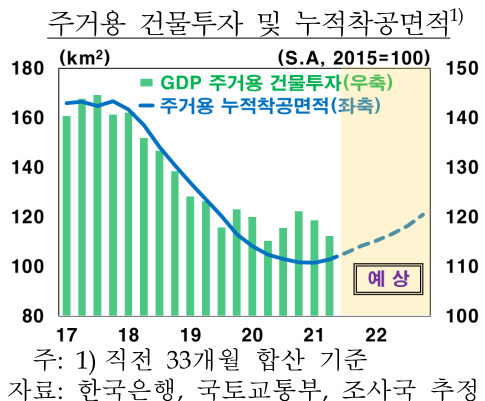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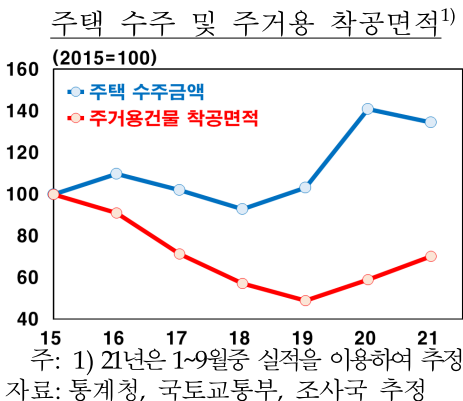
(전년동기대비, %)

(4) 건설투자

- 금년 3/4분기중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가격 급등,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토목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부진
- 향후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투자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목건설 투자도 늘어나면서 점차 회복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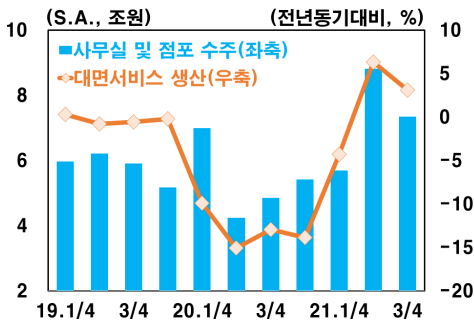
- 주거용 건물건설은 양호한 선행지표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공사물량이 점차 늘어날 전망
 - 주택수주가 최근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신규착공도 증가
 - 미분양주택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입주예정 물량도 적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주택공급 유인이 클 것으로 예상



□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방역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상업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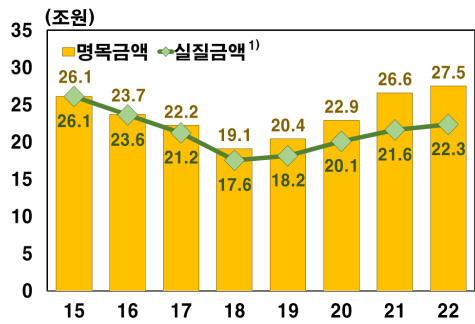
- 상업용 건물건설은 사무실·점포 등 서비스업 관련 수주가 늘어나면서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
- 공업용 건물건설은 기업 설비투자 계획을 감안하면 신규착공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

서비스업 생산¹⁾ 및 사무실·점포 수주



주: 1) 대면서비스업(숙박·음식점업, 운수·창고업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 등) 기준
자료: 통계청, 조사국 추정

정부 SOC예산¹⁾²⁾



주: 1) 추경 포함
2) 건설기성 디스플레이터로 실질화 (21~22년은 21.1~9월중 자료 사용)
자료: 기획재정부

□ 토목건설 투자는 정부 SOC 예산 확대 등으로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할 전망

-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 등이 본격화되면서 정부투자가 늘어날 전망

⇒ 건설투자는 금년중 0.7% 감소하겠으며, 내년에는 2.6% 증가할 전망

- 2023년에는 2.1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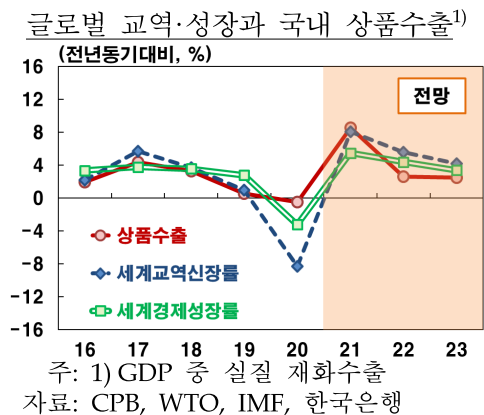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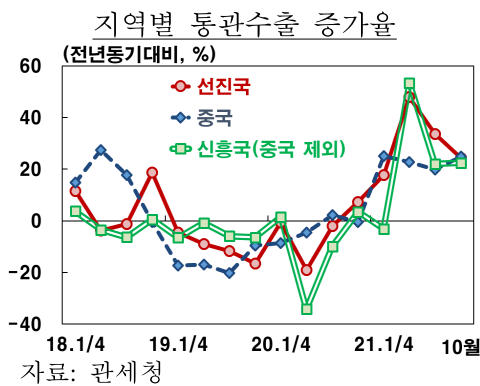
건설투자 전망

(전년동기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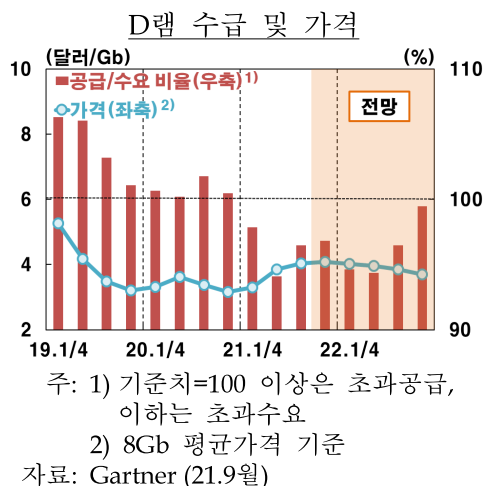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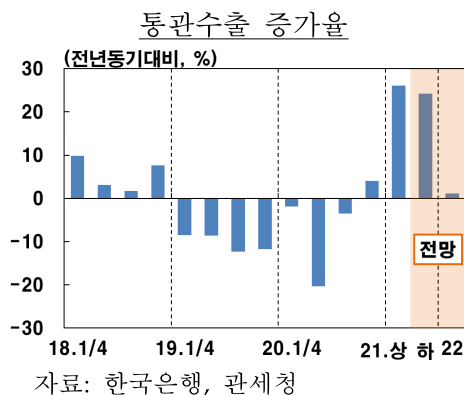
| 연간 | 2021 | | | 2022 ^{e)} | | | 2023 ^{e)} |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 |
| | -0.4 | -1.5 | 0.1 | -0.7 | 2.1 | 3.1 | 2.6 | 2.1 |

(5) 상품수출

- 3/4분기중 상품수출(GDP 실질 재화수출)은 주요국의 수입수요가 확대되면서 전기대비 증가
- 향후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, 견조한 IT 수요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
 - 글로벌 공급차질과 주요국 재화 소비의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은 상품수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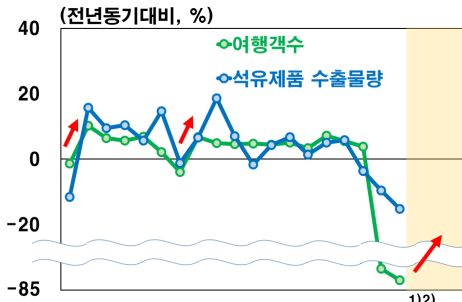


- 내년중 수출금액(통관수출)은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 - (IT) 반도체와 컴퓨터(SSD)가 추세적인 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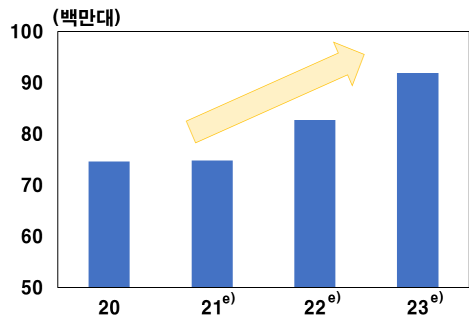
- (비IT) 철강 및 화공품은 수출단가 하락으로 감소하겠으나, 자동차, 석유제품 등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차질 완화, 국가간 인적이동 확대 등으로 증가할 전망
- (무통관수출) 스마트폰 수요가 5G폰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동남아지역 현지생산도 점차 정상화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

석유제품 수출물량과 글로벌 여행객수



주: 1) 21.1~7월 누적 기준
 2) 2021년은 2019년 대비 증가율
 자료: 한국은행, UNWTO

글로벌 자동차 생산 전망



자료: IHS Markit(21.10월)

⇒ 금년과 내년중 상품수출은 각각 8.5%, 2.6% 증가할 전망

- 2023년에는 2.5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상품수출¹⁾ 전망

| 2020 | | 2021 | | 2022 ^{e)} | | 2023 ^{e)} |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연간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-0.5 | 14.4 | 3.5 | 8.5 | 1.9 | 3.3 | 2.6 | 2.5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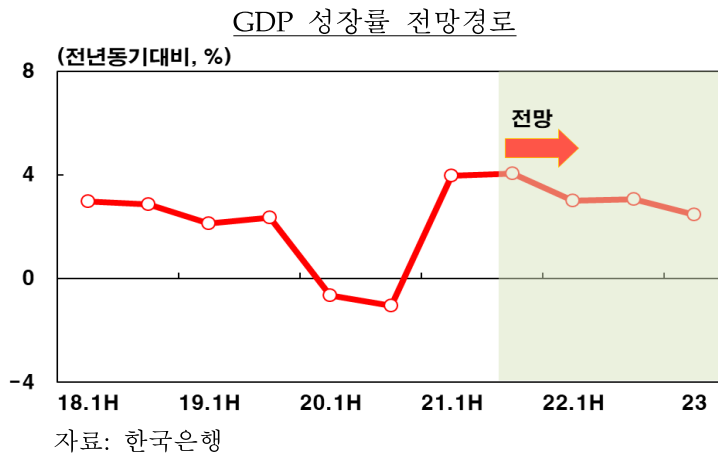
주: 1) GDP 실질 재화수출

(6) GDP 성장률

□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4.0%, 3.0% 수준을 나타낼 전망

| | 2018 | 2019 | 2020 | 2021 ^{e)} | 2022 ^{e)} | 2023 ^{e)}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▶ 경제성장률(전년대비, %) | 2.9 | 2.2 | -0.9 | 4.0 | 3.0 | 2.5 |

- 국내 경기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견실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



경제성장 전망

| | (전년동기대비, %) | 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| 2020 | 2021 | | 2022 ^{e)} | | 2023 ^{e)} | | |
| | 연간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GDP | -0.9 | 4.0 | 4.0 | 4.0 | 3.0 | 3.1 | 3.0 | 2.5 |
| 민간소비 | -5.0 | 2.4 | 4.7 | 3.5 | 4.1 | 3.2 | 3.6 | 2.5 |
| 설비투자 | 7.1 | 12.6 | 3.9 | 8.2 | -0.5 | 5.5 | 2.4 | 1.5 |
| 지식재산생산물투자 | 4.0 | 4.0 | 4.1 | 4.1 | 4.1 | 3.7 | 3.9 | 3.8 |
| 건설투자 | -0.4 | -1.5 | 0.1 | -0.7 | 2.1 | 3.1 | 2.6 | 2.1 |
| 상품수출 | -0.5 | 14.4 | 3.5 | 8.5 | 1.9 | 3.3 | 2.6 | 2.5 |
| 상품수입 | -0.1 | 12.5 | 7.8 | 10.1 | 2.4 | 3.7 | 3.1 | 2.6 |

□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, 금년중 내수와 수출 기여도 모두 큰 폭의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

내년에는 수출 기여도가 줄어드는 반면 내수 기여도는 확대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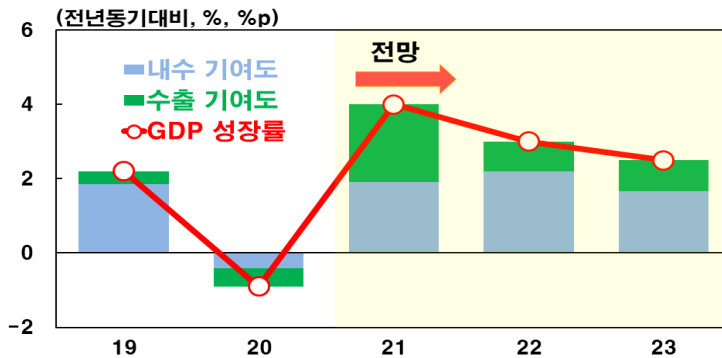
| (%,%p) | 2019 | 2020 | 2021 ^{e)} | 2022 ^{e)} | 2023 ^{e)}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▶ GDP | 2.2 | -0.9 | 4.0 | 3.0 | 2.5 |
| 내수 | 1.9 | -0.4 | 1.9 | 2.2 | 1.7 |
| 수출 | 0.3 | -0.5 | 2.1 | 0.8 | 0.8 |

□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
○ (상방리스크) 전세계적인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가속화, 신흥국 백신접종의 빠른 확대, 글로벌 공급차질 조기 해소 등

○ (하방리스크) 겨울철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심화, 글로벌 공급차질 장기화,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등

내수와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¹⁾



주: 1) I/O표를 이용하여 세부 지출항목별로 수입유발 효과를 차감하여 산

자료: 한국은행

2. 고용

(1) 동향

□ 3/4분기 이후 취업자수(전년동기대비)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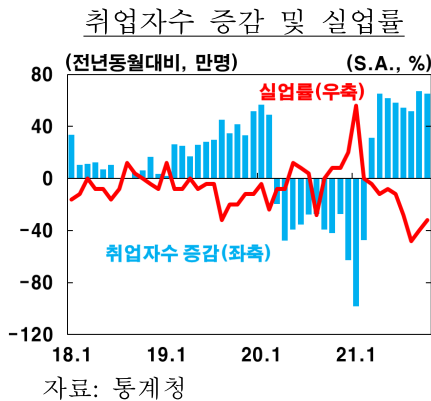
*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부진(21.9월 -5.9만명 → 10월 -6.7만명)

○ 제조업 취업자수는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, 건설업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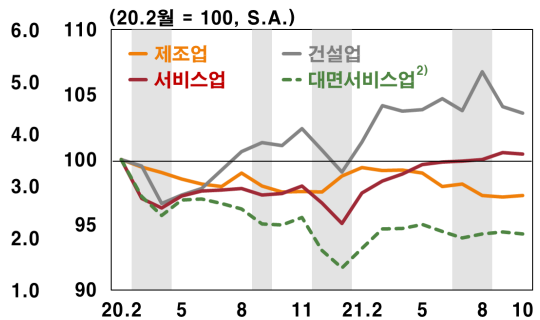
○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확대

| (전년동월대비, 만명) | 21.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취업자수 증감(전체) | 58.2 | 54.2 | 51.8 | 67.1 | 65.2 |
| 산업별 | | | | | |
| ▶ 제조업 | -1.0 | 0.6 | -7.6 | -3.7 | -1.3 |
| ▶ 건설업 | 14.0 | 9.2 | 12.3 | 5.7 | 5.2 |
| ▶ 서비스업 | 44.2 | 44.0 | 43.6 | 63.3 | 59.1 |
| 종사상지위별 | | | | | |
| ▶ 상용직 | 32.1 | 36.1 | 32.4 | 51.5 | 61.5 |
| ▶ 임시일용직 | 24.7 | 18.2 | 22.3 | 21.9 | 5.6 |
| ▶ 비임금근로자 | 1.5 | 0.0 | -2.9 | -6.3 | -1.9 |

□ 10월중 실업률(S.A.)은 3.2%로 전월(3.0%)대비 상승



산업별 취업자수 경로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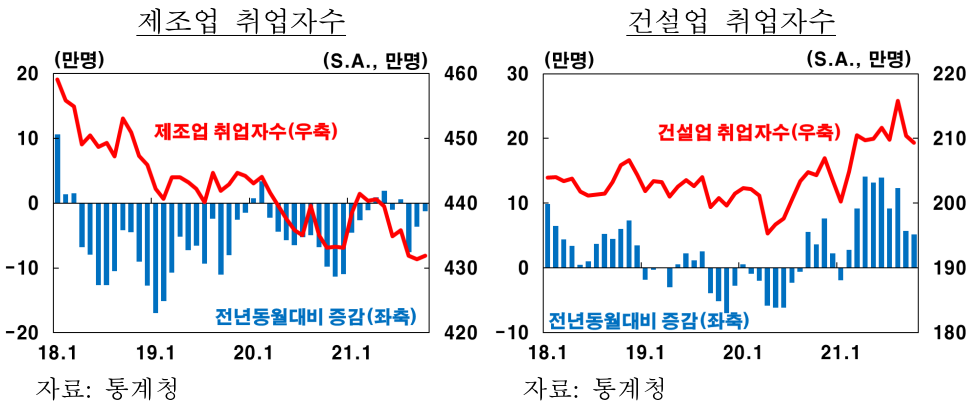


(2) 전 망

□ 취업자수는 경기회복, 방역정책 전환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
- 제조업 취업자수는 IT부문이 둔화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건설업 취업자수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*, 공공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
* SOC 예산안(본예산 기준, 조원): 2021년 26.5 → 2022년 27.5



○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대면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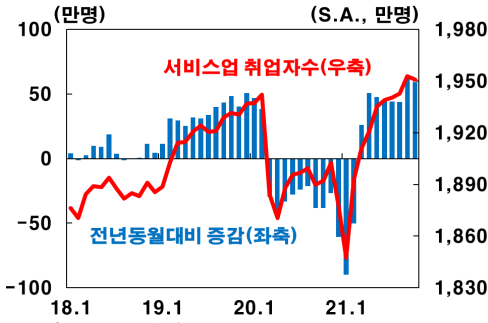
- 일자리 관련 예산 증액*,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** 등으로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 부문의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
* 일자리 예산(본예산 기준, 조원): 2021년 30.1 → 2022년 31.3(+4.0%)

** 취업 취약계층 직접일자리(만개): 2021년 101 → 2022년 105(+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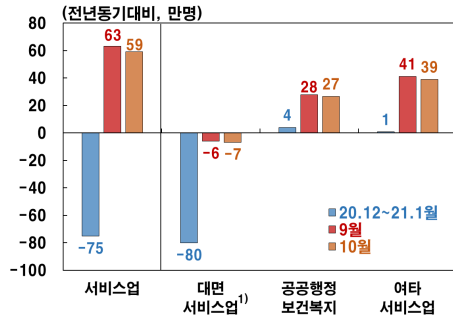
-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앞으로 방역대책이 완화되고 대면활동이 증가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

서비스업 취업자수



자료: 통계청

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



주: 1) 숙박음식, 도소매, 교육, 예술·스포츠·여가, 개인서비스 등
자료: 통계청

- 한편 생산연령인구(15~64세) 감소는 향후 고용회복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

| (전년대비 증감, 만명) | 2020년 | 2021년 ^{e)} | 2022년 ^{e)} | 2023년 ^{e)}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▶ 생산연령인구(15~64세, A) | -23.1 | -22.5 | -24.6 | -26.7 |
| ▶ 65세 이상(B) | 44.1 | 41.2 | 43.8 | 47.3 |
| ▶ 15세 이상 인구(A+B) | 20.9 | 18.6 | 19.2 | 20.6 |

자료: 통계청

⇒ 취업자수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35만명, 25만명 증가할 전망

- 금년과 내년중 실업률은 각각 3.7% 및 3.6%, 고용률은 각각 60.4% 및 60.6%로 전망

- 2023년에는 20만명 증가할 전망

고용 전망

| | 2020 | | 2021 | | 2022 ^{e)} | | 2023 ^{e)}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| 연간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취업자수 증감 ¹⁾ | -22 | 12 | 57 | 35 | 28 | 22 | 25 | 20 |
| 실업률 | 4.0 | 4.5 | 2.9 | 3.7 | 3.8 | 3.3 | 3.6 | 3.7 |
| (S.A.) | - | 4.1 | 3.2 | - | 3.5 | 3.6 | - | - |
| 고용률 ²⁾ | 60.1 | 59.8 | 61.1 | 60.4 | 60.0 | 61.1 | 60.6 | 60.7 |
| | [65.9] | [65.8] | [67.0] | [66.4] | [66.3] | [67.3] | [66.8] | [67.2] |

주: 1) 전년동기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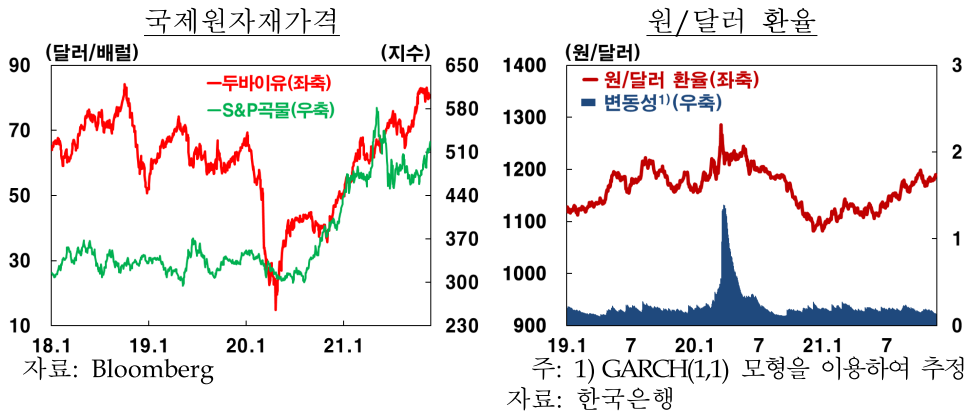
2) 15세 이상, [] 내는 15~64세(OECD기준)

3. 물 가

(1) 여 건

(해외요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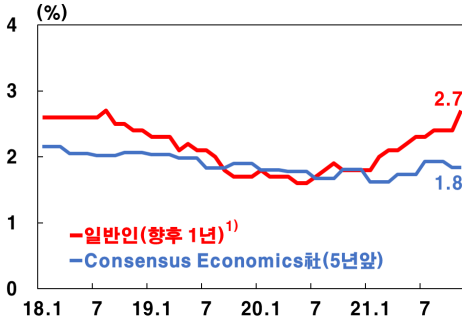
- (국제원자재가격) 국제유가는 10월 이후 80달러 내외 수준으로 크게 상승
 - 곡물가격은 비료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옥수수, 소맥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에서 등락
- (환율) 원/달러 환율은 미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우려 등으로 상승



(국내요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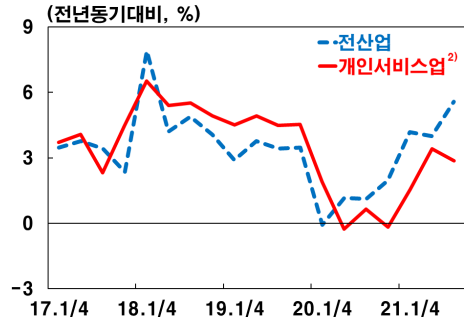
- (국내수요) GDP갭률은 마이너스폭이 축소될 전망
- (기대물가)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(향후 1년)은 2%대 중후반으로 상승*
 - * 21.2월 20% → 3~4월 21% → 5월 22% → 6~7월 23% → 8~10월 24% → 11월 27%
- (노동비용) 명목임금은 기업 수익성 개선, 특별급여 증가* 등으로 오름폭이 확대
 - *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등

기대인플레이션율



주: 1) 18.9월 이후는 신표본 기준
 자료: 한국은행, Consensus Economics

근로자 1인당 임금¹⁾



주: 1) 21.3/4분기는 7~8월 기준
 2) 음식점·주점업, 숙박업, 사업시설관리, 교육서비스, 수리업, 스포츠·여가
 자료: 고용노동부

(기타요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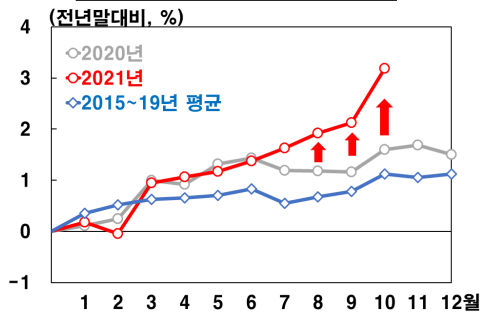
□ (농축수산물) 농축산물가격 상승세는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

○ 농산물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축산물가격이 가정내 수요 증가,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

| * (전년동기비, %) | 21.2/4 | 3/4 | 8월 | 9월 | 10월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▶ 농축산물 | 14.0 | 8.0 | 9.0 | 4.2 | 0.3 |
| - 농산물 | 16.2 | 5.4 | 7.1 | -0.6 | -6.3 |
| - 축산물 | 10.3 | 12.7 | 12.5 | 13.9 | 13.3 |
| (수입쇠고기) | 2.4 | 7.3 | 6.6 | 10.1 | 17.7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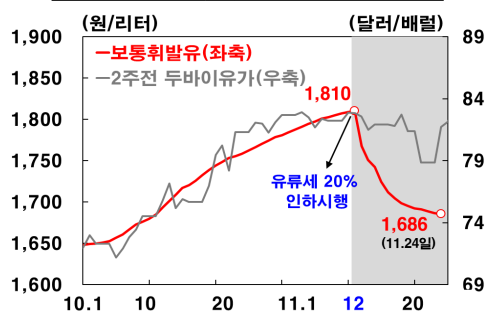
□ (가공식품) 가공식품가격은 국제식량가격 및 조미료가격(설탕, 소금) 상승, 원유(原乳)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오름폭이 크게 확대

가공식품가격 누적상승률¹⁾



주: 1) 21.2월은 양념소스, 부침가루 등 명절 관련 품목의 큰 폭 할인으로 하락
 자료: 통계청, 조사국

유류세 인하¹⁾ 전후 휘발유가격



주: 1) 유류세(정액세) 20% 인하분이 모두 가격에 반영될 경우에는 164원 하락
 자료: 오피넷, 조사국

□ (정부정책)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은 축소되었으나,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하방요인으로 작용

- 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는 내년 이후 전기료,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한 인상 압력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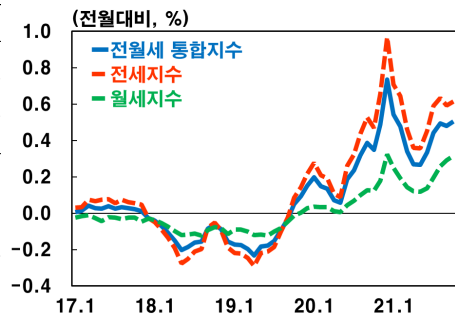
□ (집세) 전·월세(신규계약 기준) 상승 지속으로 집세(CPI 기준) 오름폭은 점차 확대될 전망

주요 공공요금 조정¹⁾

| 분류 | 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상 | 수도 - 상수도료 인상(경북, 10월) |
| | 전기료 - 4/4분기 전기료 인상(10월) |
| | 교통 - 택시료 인상(부산, 12월 예정) |
| 인하 | - 고교납입금 무상화 확대(전북 등, 3월) |
| | - 무상급식 확대(서울·대구 등, 3월) |
| | - 유아 학비·보육료 지원 확대(3월) |
| | 의료 - 흉부 초음파 급여화(4월) |
| | - 심장 초음파 급여화(9월) |

주: 1) 2021년중 시행 기준
 자료: 정부·지방자치단체 발표자료,
 조사국 서베이

전·월세 상승률



자료: 한국부동산원

(2) 전 망

□ 향후 공급측 요인(식료품·에너지)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겠으나

경기회복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병목의 영향이 내구재가격 등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

□ 소비자물가는 금년중 2.3%*,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.0%, 1.7% 상승할 전망

* 현행 소비자물가(2015=100) 기준. 올해 12월 및 연간 상승률은 기준년 개편 후 신계열(2020=100) 기준으로 공표될 예정

○ 근원인플레이션율(식료품·에너지 제외)은 금년중 1.2%,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.8%, 1.6%를 나타낼 전망

물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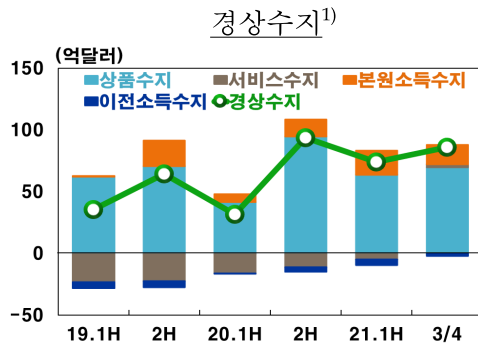
| | (전년동기대비, %)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| 2020 | | 2021 | | 2022 ^{e)} | | 2023 ^{e)} | |
| | 연간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소비자물가 | 0.5 | 1.8 | 2.8 | 2.3 | 2.3 | 1.8 | 2.0 | 1.7 |
| 식료품·에너지 제외 | 0.4 | 0.8 | 1.6 | 1.2 | 2.0 | 1.7 | 1.8 | 1.6 |
| 농산물·석유류 제외 | 0.7 | 1.2 | 2.1 | 1.6 | 2.3 | 1.9 | 2.1 | 1.7 |

□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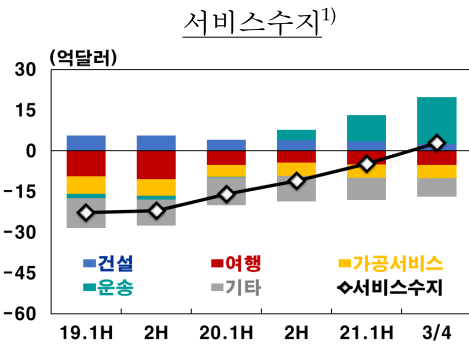
| <상방 리스크> | <하방 리스크>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가,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· 백신접종 확대 및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소비 회복세 강화 ·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겨울철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· 유가 등 에너지가격 하락 |

4. 경상수지

- 금년중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개선으로 흑자 규모가 확대되었으나, 내년에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흑자규모가 줄어들 전망
 - (상품수지) 금년중 유가상승 및 경기회복으로 지난해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되고, 내년에도 흑자규모가 소폭 줄어들 전망
 - (서비스수지) 해상운임 상승, 해외여행 감소 등으로 금년중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, 내년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일부 재개되면서 다시 확대될 전망
 - (본원소득수지) 금년중 해외배당과 이자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,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



주: 1) 기간중 월평균
자료: 한국은행



주: 1) 기간중 월평균
자료: 한국은행

⇒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중 920억달러,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810억달러, 75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

-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 5%대 초반에서 내년 4%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

경상수지 전망¹⁾

| | 2020 | | 2021 | | 2022 ^{e)} | | 2023 ^{e)} |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| 연간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경상수지 | 753 | 443 | 476 | 920 | 360 | 450 | 810 | 750 |
| 상품수지 | 819 | 382 | 383 | 765 | 340 | 410 | 750 | 770 |
| 수출(통관) | 5,125 | 3,032 | 3,378 | 6,410 | 3,220 | 3,260 | 6,480 | 6,430 |
| 수입(통관) | (-5.5) | (26.0) | (24.2) | (25.1) | (6.2) | (-3.5) | (1.1) | (-0.8) |
| 서비스본원·이전소득 | 4,676 | 2,855 | 3,225 | 6,080 | 3,090 | 3,070 | 6,160 | 6,080 |
| 서비스수지 | (-7.1) | (24.2) | (35.6) | (30.0) | (8.2) | (-4.8) | (1.3) | (-1.3) |
| 서비스수지 | -67 | 62 | 93 | 155 | 20 | 40 | 60 | -20 |
| 서비스수지 | -162 | -29 | 14 | -15 | -30 | -60 | -90 | -14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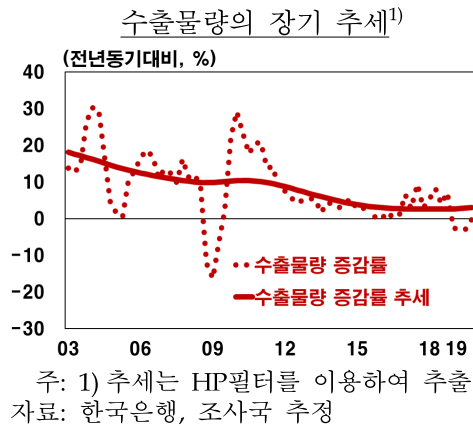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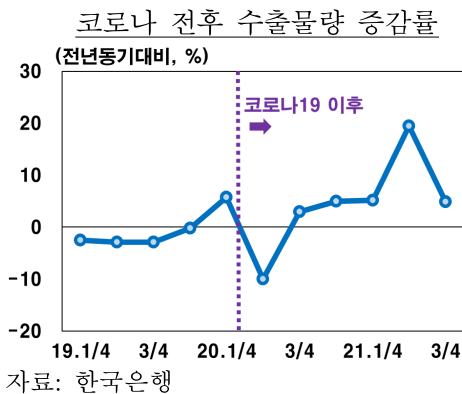
주: 1) ()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(%)

Ⅲ. 주요 현안점검

품목별 수출 물량의 추세 및 단기 여건 점검

(1) 검토 배경

- 수출물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, 내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
- 내년에는 수출물량이 기존 성장 추세로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여건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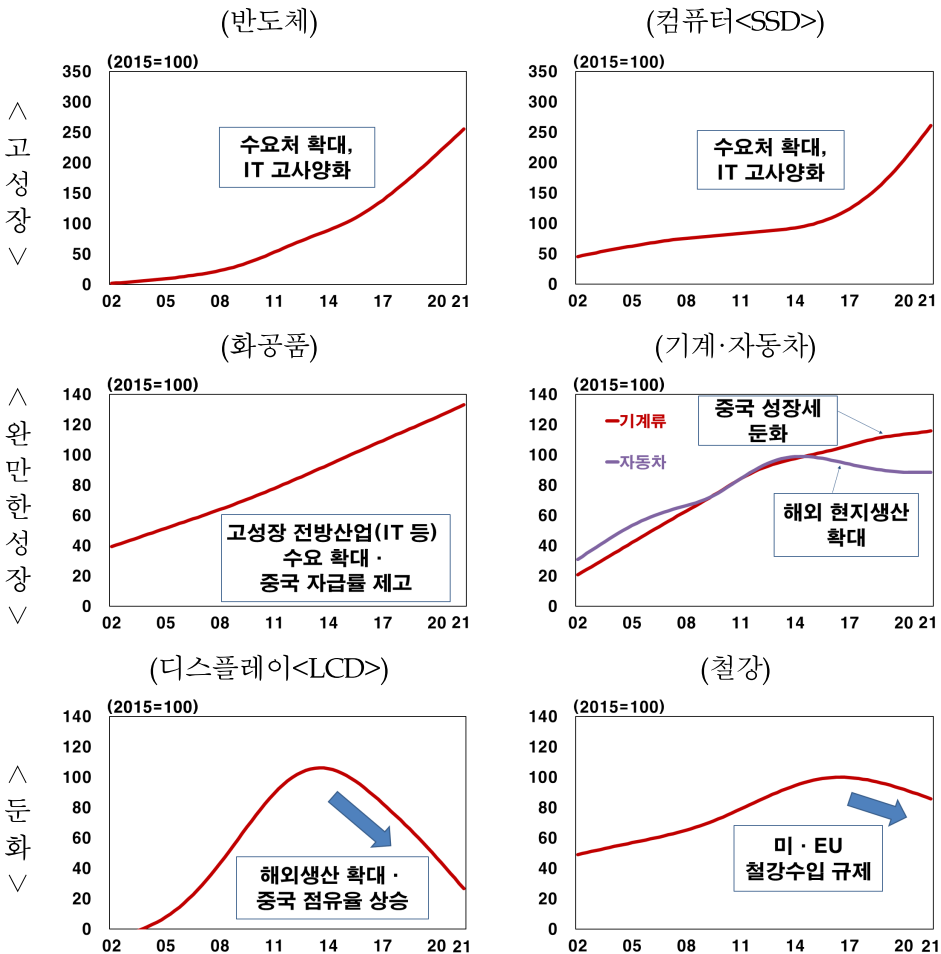


⇒ 품목별 수출물량 추세와 코로나 이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내년중 수출물량을 전망

(2) 품목별 추세 현황

-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은 코로나19 이전의 추세를 기준으로
 ① 고성장(반도체, 컴퓨터(SSD)), ② 완만한 성장(석유화학, 기계, 자동차),
 ③ 둔화(디스플레이(LCD), 철강) 품목으로 각각 구분 가능

품목별 수출물량 추세¹⁾



주: 1) 품목별 수출금액 및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품목별 물량을 추정. 계절조정 (BOK-X-13ARIMA-SEATS 모형 이용)한 후 HP필터를 이용하여 추세 추출
 자료: 조사국 추정

(3) 성장 추세 유형별 여건 점검

(고성장 품목: 반도체, 컴퓨터(SSD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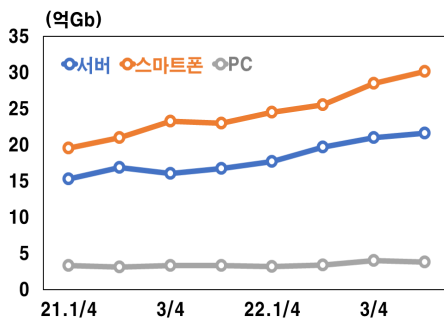
※ SSD(Solid State Drive)는 낸드플래시로 만든 데이터 저장 장치로 품목은 컴퓨터로 분류되나, 특성상 반도체로 볼 수 있음

□ (추세) 반도체와 컴퓨터(SSD)는 수요처 다양화 및 IT제품 고사양화로 추세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,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

○ (단기 여건) 최근 D램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생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, 고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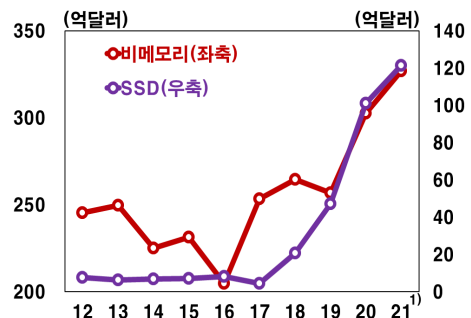
- 2019년에는 D램 가격 급락(전년대비 -42.4%)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2.6% 증가

수요처별 D램 수요 전망



자료: Gartner(21.9월)

비메모리 및 SSD 수출



주: 1) 2021년은 전망치
자료: 관세청, 조사국 추정

(완만한 성장 품목: 석유화학제품, 자동차, 기계류)

□ (추세) 화공품과 석유제품은 중국의 자급률 제고 및 탄소중립정책 추진으로, 기계류는 중국*의 성장세 둔화로 각각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완만해질 것으로 보이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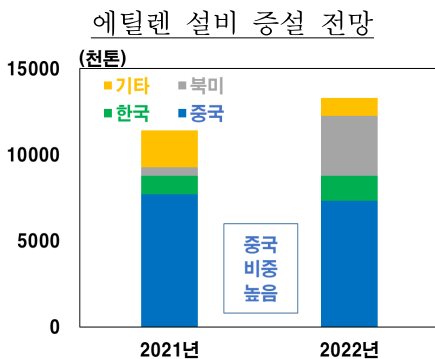
자동차의 경우 그간 해외생산 확대에 따라 정체되었으나 앞으로는 SUV 및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

* 기계류 수출 대상국 비중(2020년, %): 중국 27.3, 미국 17.6, EU 12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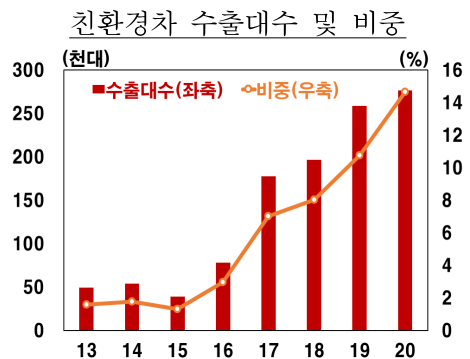
○ (단기 여건) 코로나19 확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석유제품은 내년중 국내외 인적이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,

자동차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이 동남아시아 지역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

▪ 기계류는 내년중 對중국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으나, 미국, EU, 중동 등 여타 지역에서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



자료: Bloomberg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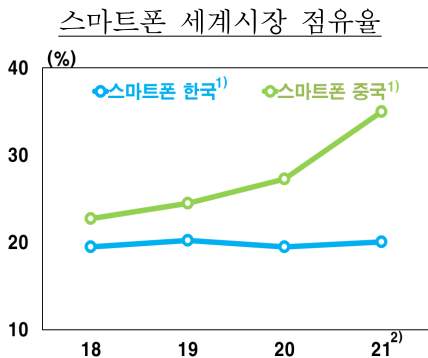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(둔화·정체 품목: 디스플레이(LCD)·스마트폰, 철강)

□ (추세) 디스플레이(LCD)와 스마트폰은 해외생산 확대 및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, 철강은 미·EU 수입규제, 탄소중립정책 추진으로 정체되거나 완만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낼 전망

○ (단기 여건) 전방산업 수요 회복, 중국의 탄소중립정책 시행(중국 내 철강생산·수출 축소)에 따른 우리 기업의 반사효과*는 내년중 철강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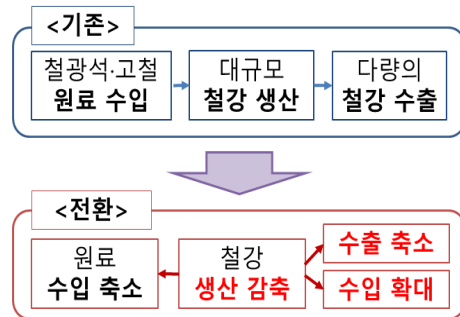
* 중국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에 대해 생산·수출 축소 정책을 추진중이며,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할 가능성



주: 1) 한국은 상위 1개사, 중국은 상위 3개사 기준
2) 21년은 1~9월중 기준

자료: OMDI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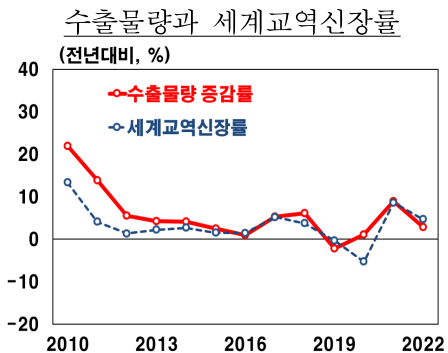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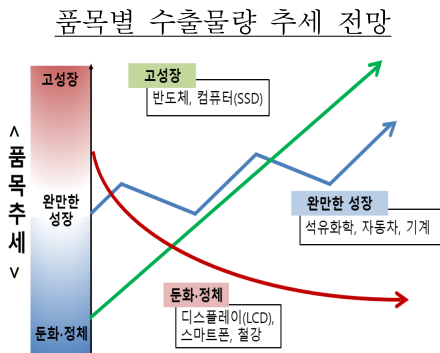
중국 철강 산업의 정책 전환 방향



자료: 철강협회 자료 재인용

(4) 향후 전망

- 품목별 수출물량의 추세 및 단기 여건을 살펴본 결과, 내년중 수출물량은 양호한 증가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
- 향후 여건 및 세계교역신장률 전망 등을 감안해 볼 때, 내년중 전체 수출물량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5년 평균(+2.5%)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
- 글로벌 공급차질 해소 시기,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정도, IT경기의 하강 가능성 등은 주요 리스크로 잠재



자료: 한국은행, CPB, 조사국 전망

부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

| 부 문 | 부 서 | 담 당 자 |
|---|-----|--|
| 작성총괄 | 조사국 | 최창호 이용대 |
| I. 대내외 여건 점검 | | |
| 1. 세계경제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신흥국 국제유가 2. 국내경제 재정지출 부동산시장 <주요 전망 전제치> | 조사국 | 오탈회 임상은 윤남준 이재운 신동수 주연희 조주연 주연희 장병훈 배기원 한채수 이택민 양준빈 김현익 장병훈 이은송 임상은 이재운 남석모 이진기 조강철 권인하 이용대 김형진 |
| II. 거시경제 전망 | | |
| 1. 경제성장 (1) 민간소비 (2) 설비투자 (3) 지식재산생산물투자 (4) 건설투자 (5) 상품수출 (6) GDP성장률 2. 고용 3. 물가 4. 경상수지 | 조사국 | 광법준 김주완 이흥후 안준영 박종욱 이나윤 박상우 광윤영 김선진 주 욱 안희정 이운정 이용대 조병수 김동훈 이 용 송상윤 김하은 이동원 이승철 오강현 김윤경 강재훈 이재진 민은지 안희정 |
| III. 주요 현안점검 | | |
| 품목별 수출 물량의 추세 및 단기 여건 점검 | 조사국 | 김선진 이운정 |